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르신께서 현재 받고 계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경됩니다.

서비스상담을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관리자의 서비스상담을 통해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등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잔액은 2020년 2월 이내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이어서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0년 1월에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군·구 내 심사절차를 거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으로 수행기관과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행기관과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담당자 등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어르신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사업단명	사업내용	인원	기간	필요서류
커피 매장운영사업	커피 제조 및 판매, 홍보, 상품개발, 환경미화 활동	15명	1월~12월	신청서 신분증 자격증
쿠키 매장운영사업	쿠키 제조 및 판매, 홍보, 상품개발, 환경미화 활동	15명		
총인원		30명	-	-

■ 활동시간 : 주 1회(일 7시간) / 월 28시간 활동

■ 활동비 : 월 250,000원 / 시급(8,590원 이상)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 신청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참여자선발 :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통합 선발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1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관련자격증 사본(또는 관련 이력서)

■ 신청장소 : 홍천군노인복지관 방문
온라인(복지로온라인신청-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전화 : 033-430-8700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홍천군노인복지관

CONTENTS



02 - 살만한 홍천

03 -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04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5 - 스포츠 및 행사
우리 마을

06 - 문화행사

07 - 자원봉사단체

08 - 건강정보, 기자칼럼



살만한 홍천**동면 이규대 씨 (62세)**

홍천 명품 인삼 사과 재배 “다른 사업 안 부러워요.”



◇홍천 동면에서 인삼과 사과를 재배하는 이규대 씨가 홍천사과축제에 참가해 높은 판매실적을 올렸다.

배우고 연구하며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 고소득 사회단체 참여 봉사활동에도 앞장 서는 홍천인

홍천 인삼 연간 수 억 소득 부 이뤘 홍천 사과 작년부터 수확 점점 증가세

이규대 씨는 홍천의 특산물인 인삼을 재배하여 연간 수 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을 이루었다.

인삼 재배주기는 6년인데 해마다 1만 평 정도를 새로 심고 한 편으로는 6년근 인삼 1만 평을 캔다.

사과 묘목도 다량 심어 작년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는 수확량이 상당히 늘어 홍천 사과 축제에 선을 보였다. 지구의 온난화로 홍천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홍천의 주산물도 바뀌게 되었다.

금산에서 재배하던 인삼이 홍천으로 올라왔고 홍천에 정착한 인삼이 홍천강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작산 공기를 먹고 명품으로 자리잡았다.

여름이면 가장 덥고 겨울이면 가장 추운 대구의 날씨가 홍천으로 옮겨 오면서 '대구 사과'가 함께 홍천으로 이사 와서 홍천의 명품으로 탈바꿈했다.

전통적인 농업을 벗어나 기후 변화와 새 품종도에 빠르게 편승한 결과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늘 막 속에서 약성을 축적하며 자라는 인삼을 보살피고, 가지가 휘도록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손질 하노라면 성취감이 가득해진다.”고 했다.

홍천에서 나고 자란 모범 애향인 3자녀 모두 결혼 다복한 가정 이뤘

이규대 씨는 홍천읍내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사업기반을 넓히려 했으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농업에 관심을 가졌다. 이즈음 홍천의 주산물인 벼와 옥수수 등의 보통작물 농사가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어 홍천을 떠나는 이농인이 속출했다.

그러나 이 씨의 생각은 달랐다.

홍천의 기후대가 과거 남부 지방의 온도처럼 올라가고, 한 번 재배한 곳은 연작이 힘든 인삼이 홍천에 재배가 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삼 재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배 방법이 생소하고 인력 수급 등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배우고 연구하며 개인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갔다.

연차적으로 인삼을 심으며 캐며 하여 소득이 늘자 힘들던 만큼 보람이 커졌단다.

2남1녀를 낳아 성장시켜 모두 결혼 시켰고 자녀들에게도 뒷받침을 해줬다.

지난 11월 1일부터 3일 까지 토리 숲 공원에서 펼쳐진 홍천 사과 축제 때는 아들·며느리·딸·사위가 함께 모여 사과 빛깔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애의 모습을 연출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사회단체 참여 봉사 활동에 앞장 ‘살만한 홍천’ 홍보하고 공유할 터”

사과 축제 기간 중 남양주에서 소식을 듣고 왔다는 젊은 부부는 “한 바퀴 돌면서 사과 시식을 했는데 여기 사과가 달고 식감이 좋아서 몇 박스 사간다.”고 했다.

사회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사과 시식을 하며 이규대 씨를 응원하였다.

“홍천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이씨의 명품 인삼 명품 사과를 보니 홍천의 특색을 알리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고 했다.

홍천 사과 축제장에는 허필홍 홍천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홍천시민 외지 관광객들이 어울리고 즐기는 먹을거리 축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규대 씨의 ‘공작산 천지연농원’은 축제 기간 3일 간 가족이 총 출동하여 목표량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단다.

이 씨는 새마을 홍천군협의회, 국제라이온스클럽에 참여하고, 홍천향교 청년유도회장,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부회장을 맡는 등 사회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홍천이 살만한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홍천에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은 포부가 있다.”고 말하는 이 씨는 어느새 홍천 홍보 대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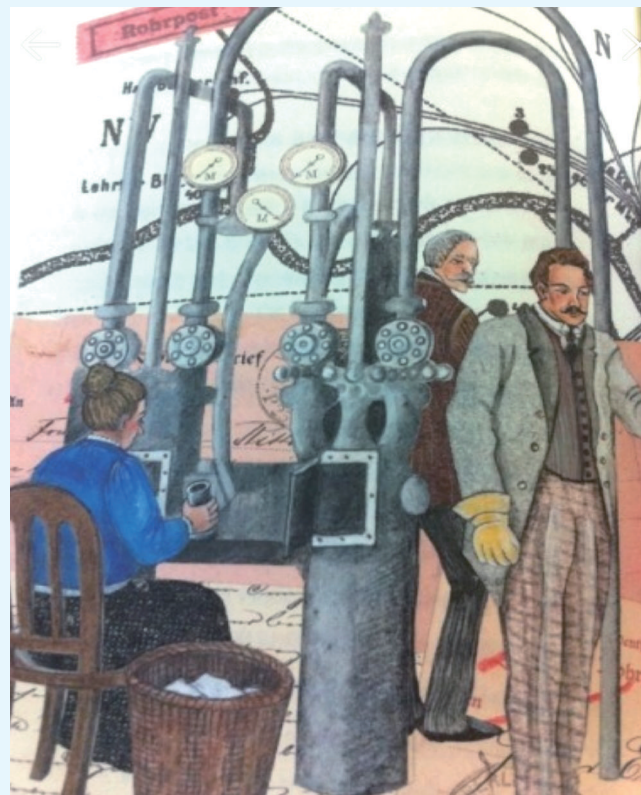


허남영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색 직업들

촛불관리인, 지하관 우편배달부 등... 신기술 따라 새로운 직종 출현



◇참고: 미하엘라 비저 작, 권세훈 역 『역사 속에 사라진 직업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급물살의 변혁기를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이 새로운 혁명의 파고를 또 어떻게 넘을지 불안해하며 맞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이면에는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누구도 경험치 못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확한 직업 예상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사라진 직업들을 돌아보며 추측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 중 다소 특이한 이색 직종 몇 가지 알아보자.

하나, 촛불관리인. 유럽 극장들은 연극을 공연할 때 이들 촛불관리인들이 필요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이라면 야외무대가 공연장이었으므로 조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지붕이 있는 극장이 생기면서 무대 공연은 조명을 필요로 하였다. 객석은 물론 무대 맨 앞쪽을 따라 한 줄로 촛불을 켜 조명 역할을 하였다. 문제는 촛불의 그을음으로 촛불관리인은 그 심지를 자주 관리해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대 쪽의 촛불은 공연하는 동안 꺼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했다. 그들은 또한 공연중인 연극의 단역도 하였고, 극장에서 발행하는 화재 방지 책임도 있었던 극장의 필수 요원이었던 셈이다. 가스등이 발명되기 전까지 그들의 일은 계속되었다.

둘, 지하관 우편배달부. 1863년은 지하관 우편이 처음 배달되던 해다. 때는 산업혁명기로 대도시는 기계문명으로 분주하였고 사람들은 정확하고 규칙

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서신을 전달하는 것도 속도가 필요하던 시절, 도심 거리는 마차들로 막히고 북벼 서신 배달이 용이치 않았다. 자전거가 있었지만 넓은 구역을 배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파리, 런던, 베를린,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생각해낸 것이 여러 우체국을 지하의 관으로 연결하여 압축공기로 우편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었다. 모든 우편물은 방사상으로 이루어진 그물망을 통해 중앙 전신국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자전거로 짧은 시간 내에 각 지역으로 배달되는 식이었다. 잘못하면 다른 우체국으로 서신이 배달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직업이었다. 바쁜 시절 소식을 빨리 받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 우편 시스템을 만족스러워했다고 하며 1984년 마지막 지하 우편물이 배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20세기 후반 들어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지하관 우편 시스템과 함께 그 직업도 사라지게 된다.

셋, 이동변소꾼. 중세, 근대 시대에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도시에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도 있었던 공중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었다. 시골이나 도시 외곽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에도 사람들은 불일이 급하면 으스스한 골목, 담벼락, 심지어는 한길 가에도 실례를 하여 악취가 진동했다고 한다. 유럽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도 이러한 악취를 숨기려는 고육책이었다니 아이러니컬하다.

특히 시장이나 박람회장이 있는 곳에는 이동변소꾼이 인기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용변이 급한 사람들을 불러 자신들이 지니고 다니던 용변도구인 양동이와 긴 외투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불일을 처

리하도록 도왔다. 이 직업은 19세기 중반 공중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공중화장실이 생기기까지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 존재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어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들이 있다.

전화교환원, 타자수, 필경사, 버스안내원, 방물장수, 불링핀 세터, 변사 등. 필자의 이모부는 필경사였는데 그 직종이 필요없어지면서 보험업으로 전직한 기억이 난다.

직업은 당대를 비추는 창이라고 한다. 직업을 보면 그 시대 문화, 문명, 기술발전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 중 향후 20년 이내로 사라지게 될 직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미래 연구자들에 의하면 로봇이나 자동화된 기계들이 텔레마케터, 조립공, 은행원, 스포츠 심판, 운송업, 계산대 점원. 우편업무 종사자, 전자제품 조립 직업 등에서 사람을 대체하게 되고, 빅데이터와 기계알고리즘의 활용으로 대출업무 직종, 신용분석가, 판례연구 법률회사 직원, 회계업무 종사자 등도 자신의 일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자 등의 전문 직종도 인공지능과 경쟁하거나 최소한 협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들의 직업이 모두 사라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늘 그러하듯 신기술에 맞는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출현 직업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직종일 것이다.

김민호 기자

“회원 연회비 없어 경로당 생활 즐거워요”

마을 건물 임대료 수익중 일부 지원받아 운영 치매교실, 노래교실 매주 개최 회원간 정 돈독



◇연봉3리 경로당 회원들(뒷줄 오른쪽 4번째 권영택 이사, 5번째 이명선 노인회장)

홍천읍 연봉3리 경로당은 경로당앞에 “연삼정”이라는 한옥형태의 정자를 2018년에 건설하여 타 경로당과 비교되는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연봉3리 경로당은 올해초 이명선 회장(79세)이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출되어 총무 장종순 할머니(75세)와 함께 83명의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경로당의 최고령 어르신은 86세의 서순선 할머니이고 84세의 박덕주 할아버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노인회 가입비는 2만원이고 연회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까지 관내 경로당 취재한 곳 중 연회비를 받지 않는 경로당은 연봉3리 경로당이 유일한 듯하다. 경로당에 약 9백만원의 기금이 있으며 마을 소유의 건물을 임대주고 받는 수입금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봄, 가을로 소풍을 다녀오며 마을에 위치한 한전에서 매년 70~80마리의 닭을 기부해주고 있어 회원들이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고 있다며 고마워 했다.

현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치매 예방교육”과 홍천군 노인회에서 진행하는 “노래 교실”을 매주 월, 수, 금 3회 진행하고 있다.

이명선 회장은 홍천 태생으로 평생 건축업에 종사했으며 요즈음은 노인회를 위해 봉사하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연봉리의 옛이야기를 얘기해 주셨다.

연봉리는 원래 1개 리였으나 인구증가로 11개의 행정리로 늘어났다고 한다.

과거 1개리로 있을 때는 주민들이 쌀 1되씩을 걸어 현재 영원모자 공장터에 있던 저수지 위에 있는 성황당에서 매년 삼월 삼짇날 돼지잡고 떡을

해서 마을제 지내고 마을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현재 경로당을 365일 휴일없이 개방하고 있다 보니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경로당 살림살이가 빠듯하여 회원들 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각종 푸성귀 등을 가져와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마을이장인 권영택(65세) 현 홍천군 사회 복지협의회 회장이 매주 떡볶이, 고기 등을 가져다주는 봉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임기 2년의 마을이장에 선임된 권영택 이장은 홍천군 농구연합회장 등 각종 단체의 회장 등을 역임한 홍천군의 인재로 현재도 홍천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권이장은 연봉3리는 마을인구가 650세대 1,260명이고 1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간 갈등, 분쟁이 없으며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며 자랑한다.

또한 권이장 부친께서도 게이트볼협회 회장직을 5년간 역임하였고 딸 4명이 출가하여 홍천에 모두 살고 있는데 딸들이 각자 직장에서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다복하게 잘살고 있다며 은근히 딸자랑인데 이런 것이 다 같은 부모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연봉에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은 30여 년 전에 홍천군에서 최초로 건립되었고 현재 2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랑도정신을 기리는 화랑회관도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본보 2019년 11월호 5면 참조)

마을에 소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시가지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권 이장의 말에 이명선 노인회장께서는 되도록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경로당 근처에 그런 시설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 연봉리에 있는 문화유적

- 홍천 철비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1호이며 1984년 6월 22일 지정되었고 현재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 향토사료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연봉리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17기의 선정비 중 하나로 일반적인 돌비석과 달리 철로 만들어 세웠다. 선정비란 어진 다스림을 베풀 관리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시대 홍천 현감을 지낸 원만춘의 덕을 기리고 있다. 다듬지 않은 바닷돌 위로 철로 만든 비몸을 세운 모습으로, 비몸 윗변에 귀 모양같은 것이 양쪽에 하나씩 앙증맞게 솟아 있다. 비몸 앞면 중앙에는 세로로 비의 이름을 새겨두고, 양옆으로 두 줄씩 비문을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다. 뒷면에는 이비를 만든 장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 독특한 모습이다. 원래는 홍천읍 희망리 홍천군정 앞에 도로가에 서 있었으나 최근에 이곳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 연봉리에 건립된 기념비

1) 충훈탑

홍천읍 연봉리 산 363-1(무궁화공원 내)에 세워져 있다. 홍천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50년 12월 13일부터 1951년 5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 국군 제3,5,8사단과 미해병 제1사단 및 캐나다, 뉴질랜드 부대가 북한군 제6,11,12,45사단과 중공군 제63군을 맞아 싸운 전투에서 홍천군 출신의 군경 468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이들을 추모하고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해 1972년 8월 15일에 충훈탑을 건립하였다.

2) 홍천지구 전투 전적비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 홍천읍 연봉리 산363-1(무궁화공원 내)에 있다. 홍천은 38선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으로 중부전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중 하나이다. 최전방지역인데다 인제, 양구, 화천에서 수도인 서울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춘천, 홍천이었던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3일 동안 저지시킨 춘천 전투는 잘 알려진 것이나 홍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홍천 전투이다.

(관련기사 본보 2019년 11월호 4면 참조)

홍천전투는 1951년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 후퇴했다가 국군이 반격하는 시점에 벌어진 전투로 제3,5,8사단과 121해병 및 캐나다, 뉴질랜드 부대가 방어와 재반격 작전을 빈번하게 벌임은 물론 부대단위 또는 연합하여 중공군, 북한군의 과상 공격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홍천지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춘천을 거쳐 화천 북방까지 전선을 크게 밀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전적비는 1957년 3월 15일 제1군단이 건립한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이다.

3) 3.1운동 기념비

홍천읍 연봉리 산 363-1(무궁화공원 내)에 있다. 3.1운동기념비는 1919년 3.1운동 당시 홍천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장렬하게 숨지거나 옥고를 치른 뜻을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사와 홍천군 3.1운동기념비 건립위원회가 1979년 10월 3일 건립한 것이다. 비문에 의하면 1919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그로 인해 홍천읍에서는 차봉철, 서성우, 오창섭이 주동이 되었고, 도로공사 부역꾼으로 가장한 북방면 농민 300여명이 합세하여 독립만세 소리가 홍천군을 뒤흔들었다.

또한 동면에서는 민병숙, 민병택이 피살 되었고, 내촌면 동창리에서는 천여명의 군중이 산마루가 울려 퍼지도록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의 총탄으로 이순극, 전영근, 이기선, 연의진, 김자희, 전기홍, 양도준, 이려선 등 팔 명이 장렬하게 숨졌다. 그리고 5천여 명의 시위자 중에서 100여 명이 투옥되어 실형을 받았고, 그 외 수많은 군민이 고문을 당하였다. 붉은 벽돌담을 검은 벽돌로 둘러싼 모습을 하고 있으며, 비가운데 위에는 만세라는 글자가 전서로 쓰여 있다.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이다.

전소영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및 행사

제24회 농업인의 날

10개 읍면 농업인 1,000여명 참가 한마당 대잔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홍천군 농업인회장(강천우)은 2019년 11월 11일 10시부터 북방면 공설운동장에서 홍천군 10개 읍·면 농업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마당 잔치가 진행되었다.

제1의건강 놀이터 행복한 창조도시 홍천군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회식에 이어 한 해의 농업인상 시상식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결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뜻깊은 한마당 잔치가 시작되었다.

식전 행사에는 댄스공연이 시작되어 한 해를 뒤로 하고 한국생활개선회 홍천군연합회 박미선 외 8명이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홍천군연합회 민선기외 9명이 보기 드문 댄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1,000여 명이 함께하는 자리를 더욱 빛내 주어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홍천군 농업인 한마당 체육행사

홍천군 농업인은 옛 향수를 그리워하며 진행된 어르신들에 풍선 터트리기, 신발멀리던지기, 20키로 쌀포대 들어 올리기 등 재미있고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홍천군 10개 읍·면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으로 11월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시간



◇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북방면 공설운동장에서 한마당 잔치가 진행되었다.

만큼이라도 즐거움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었다.

상설 행사장에는 서각전시회, 인삼시식회, 드론 전시시연, 농산물원산지 비교전시 등 다양한 상설 행사로 농업인들의 또 한번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제공되었다.

농업인 농자전하지대본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며 농업이 제일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현재는 먹을 것이 많아 농업과 농민들의 절실한 생각을 잊어가고 있는 현실이기에 마음과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농민은 농업의 위상이 낮은 것을 걱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민은 농업만으로는 최소한의 이익에 못 미치기에 대체작물과 특용작물을 해야 하나 모든 것을 해 본 이는 실패작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24회 홍천군 농업인의 날을 마치며 홍천군농업인회장(강천우)은 홍천군 10개 읍·면 군민이 한마음 되어 농업인의 날을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인사와 부족했던 것을 뒤로 하고 각 가정마다 2019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20년을 농업에 풍년을 기약하며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안태수 기자**



우리 마을 - 홍천군 북방면 향기

“4000여 주민 도시·농촌 삶 향유 살기좋은 마을”

강은순 북방면장 인터뷰



북방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4천여 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원주 춘천 간 45번국도가 마을 중심지 상가를 지나고 홍천읍으로부터 승용차로 5분 서울에서부터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삶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17개의 법정리와 20개의 향정리 6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 14.647ha중 임야 11.83ha로 80.8%를 차지하고 농경지가 1.467ha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천강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끌고루 가지고 있어 자연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임을 증명하는 무궁화 수목원과 무궁화 테마공원, 살신성인의 강재구 소령을 기리는 강재구 공원이 있어 호국



◇ 북방면에 위치한 무궁화테마파크.

보훈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국립수목원으로 등록한 무궁화 수목원은 국내 최초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한 수목원으로서 무궁화 5천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궁화 누리길, 온실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있어 교육, 힐링, 체험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의 양성기관인 강원인력 개발원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연구공원 태극문양 마을을 볼 수 있는 금학산 동양최대의 아미타태불 연화사, 하이트 맥주, 진로 공장 수려한 홍천강과 장항리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까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

고 싶은 자연생태 휴양관광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천 정명 천년 새로운 시작을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북방면에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삶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은 무궁화 수목원과 강원도 생태공원이 공존하고 있다. 능평리에 소재한 돌산을 홍천군청에서 개간하여 무궁화 수목원을 등록하였다. 애국자가 많이 나온 북방면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그리워한 남궁 익 선생과 강재구 소령의 추모비 기념과 공원과 신여군 등 5명이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을 동동산에서 기도하였다고 한다.

장수자가 많이 나와 장수촌이라고 한다. 북방면 성동계곡은 감나무가 서식하는 환경이 좋고 물이 좋아 안정도는 102세에 죽었다. 90세 넘는 장수자가 많아 일명 모시려고 뒤에다 방을 많이 만들어 놓아 일명 성동을 ‘뒤편’이라고 하였다. 활동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삶은 아름답고 장수하게 한다. 김영배 성직자는 모처에서 두부를 싣고 와 반에 공급하며 동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다.

이광명 기자



새로운 세상 갈망하던 농민군 자작고개서 비참한 최후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추념식이 지난 10월 23일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에서 열렸다.

30여 가구 제삿날 같아 당시 참담함에 가슴 먹먹 살풀이 공연, 격전 장면 재현 구천 맴도는 뉘 위로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다.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서석면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는 잘 다듬어져 있었다.

사방은 깊어가는 가을의 전령인 낙엽이 만산홍엽을 이루고 있었다. 10시가 가까워지자 각계각층의 내외빈들이 속속 도착했다. 식은 엄숙히 진행되었고 오프닝으로 살풀이 공연과 테너와 소프라노의 공연도 서늘한 가을의 바람에 실어 쿿전에 부서졌다. 125년 전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농민들의 봉기로 전북 고창에서 노도같이 일어난 농민군의 합성이 들리는 듯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목숨을 바친 농민군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살풀이 공연은 구천에 맴도는 뉘를 위로하는 하얀 소복을 입은 무희의 몸동작은 숙연함마저 느끼게 했다.

행사의 절정은 학생들의 125년 전의 마지막 격전의 처절한 장면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여겨졌다. 일본군과 합세한 막강한 관군의 힘을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오로지 정의와 새 세상의 도래를 열망하는 마음 하나로 맨몸으로 맞서는 장면은 눈물겹게 했다.

동학농민운동이란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및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 봉기를 가리킨다.

크게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봉기(1차)와 음력 4

월의 진주성봉기(2차)와 음력 9월의 전주·광주 궤기의(3차)로 나누어진다. 교조 최재우의 신원 외에도 기존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혼란이 쌓이다가 1892년(고종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

부패 척결과 내정개혁, 그리고 동학교조 등의 신원 등의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군 중 일부는 흥선대원군, 이준용 등과도 결탁하였다. 전봉준은 대원군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축출을 위해 대원군과 손을 잡았다.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의 제거를 위한 무력 집단이 필요했고 동학농민군과 제휴하게 된다.

동학농민군 일부는 탐관오리 처벌과 개혁 외에 대원군의 섭정까지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다. 한편 흥선대원군과의 연대를 못 마땅히 여긴 김계남은 수시로 전봉준과 충돌하다가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 이방언은 농민운동 진입 직후 흥선대원군이 특별히 사면하여 석방되었으나 민씨 계열의 관군에 의해 살해된다. 그 밖에 최시형, 손병희 등 북접의 지도자들은 남접의 거병에 쉽게 호응하지 않다가 그 해 9월의 3차 봉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편 개화와 지도자이자 망명객인 윤시호는 동학농민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화제가 되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민씨 정권에서는 청나라 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 농민전쟁 진압 후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홍천 풍암리 동학 혁명 전적지

강원도에서는 동학이 2세 교주 최시형에 의해 1869년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동학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지역에서는 1894년 3월 전라도를 중심으로 봉기하였을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9월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군 봉기에 동참하였다.

강원도 농민군은 크게 정선, 평창, 영월,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세력과 차기석이 이끌던 중부 내륙 세력이 있었다. 차기석의 농민군은 주로 홍천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11월 홍천관을 공격하고자 홍천읍 장야촌 지역까지 진군했다가 속초리에서 관군에게 패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퇴각하여 서석면 풍암리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1월 24일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의 공격에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자작고개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재 풍암리 주민들 중 이 전투 날짜(음력10월 22일)에 기재를 지내는 집이 30여 호에 이른다 하니 당시 마을의 참담함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의 현장에서

풍암리 동학 혁명 전적지는 야트막한 산 등줄기에 자작고개와 같이 있었다. 125년 전의 피비린내나는 처절한 전투에서 희생당한 원혼이 떠도는 듯했다. 전투에서 많은 피를 흘려 자작자작 흘렀다 하여 자작고개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 날의 희생으로 30여의 마을 주민들이 제사가 같은 날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역사의 지나간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온고이지신의 교훈을 생각해본 하루였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학 동문회

“밭 임대해 배추·무 직접 재배 보람·기쁨 두배”



◇사회복지대학 동문회가 주관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11월 5일 열렸다. 이날 8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사회복지대학 동문회 주관 22명 참여 구슬땀 노인복지관 배식, 각종 축제장 봉사도 솔선



◇회장 김혜경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대학 동문들이 모여 밝은 웃음과 격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날 마친 김장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밭을 임대하여 배추, 무, 총각무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10월 28일 배추 뽑기를 시작하여 다듬고 절이며 11월 5일 배추 800포기의 김장을 마쳤다. 남녀 22명이 참여해서 해냈다고 하니 그 노력이 얼마 만큼인지 알 수 있었다.

이번 김장은 봄부터 계획하였고 여름내 농사를 하여 이뤄진 작업이어서 의미가 더 컸었다. 회원들은 양념을 버무리다 부족하면 집에 있는 고춧가루를 가져 오기도 하고 개인의 재료도 아낌없이 가져다 사용하며 해냈다는 보람과 뿌듯함이 서로에게 가득하였다.

- 봉사는 혼자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 같다. 봉사를 하고 난 후 저녁에 피곤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곤치 않았다. 직장생활과는 다른 분야였지만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많이 힘들었고 돈을 버는 일도 아니었지만 봉사한다는 마음에 보람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게 되었고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 - 장미경 총무

- 봉사란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닌 희생이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나도 받는 것이며 그것은 행복을 받는 것이었다. - 박홍영

- 집안 작은 일만 해봐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혹시 뒤채일까봐 염려했지만 그래도 잘한다며 칭찬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일은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었다. 많이 배우면서 마음이 행복해졌다. 모두 웃으면서 일하는 게 복이라고 느낀다. 모두들 한마음으로 일하고 이런 모임에서 봉사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느낀다. - 김명순

- 귀촌한지 5년이다. 회장님을 무척대고 따라다니다가 얼떨결에 봉사를 하게 되면서 봉사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꽃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 싶다. - 서행연

- 공직에서 퇴직하고 협의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다. 동문회원들이 성의를 다하여 일하는데 감명을 받아서 봉사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더 나은 동문회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부회장으로 울타리 역할을 잘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 오라기의 실이 한 필의 천에 없어서 안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 나운길 부회장

- 뇌동맥과열로 3일 만에 깨어났다. 죽다가 살아났으니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 봉사한다는 것은 생각이 젊어지는 것 같고 보람 있고 감사하다. 사회복지협의회 봉사활동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겠다. - 김영심

- 모두들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함께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곳에서 재능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을 요즘의 시급으로 생각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가 크겠지만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존경심이 들었다. 힘들 때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음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보영

이렇게 모든 회원들이 해냈다는 기쁨과 힘든 일을 극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이뤄낸 성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였다.

김장은 심어 놓은 배추로 했지만 양념은 회장님이 지원하였고 총무, 감사 등 기타 회원들의 여러 가지 후원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특별히 김혜경회장 남편의 외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많아야 2-30포기 김장을 하는 가정을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을 양의 재료들을 흔쾌히 후원해 주셨다고 했다. 김혜경 회장이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도 식당에서 식사비를 받지 않을 만큼 보기에 섬기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회원들이 입을 모아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준비한 김장김치는 사회복지협회를 통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홍천 사회복지대학 동문회는 12년간 봉사하여 오다가 이번 김혜경 회장 체제로 봉사를 시작하기는 첫해이다.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와 옥수수 축제, 사과 축제 등 행사 때마다 판매 및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보람과 감사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순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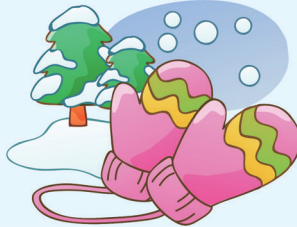
고혈압, 심장병 환자 주의... 정기적인 운동은 필수

겨울철의 신체적 특징

- ▶ 찬겨울 날씨에 기온이 떨어지고 몸을 움츠리게 하고 혈압을 올리게 되어서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 환자나 노인, 어린이, 허약한 사람은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 ▶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식욕을 잃기가 쉬워집니다.
- ▶ 기온이 내려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잠자는 동안 체온조절이 둔해지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 겨울철에는 무엇보다도 알맞은 운동과 더불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 기나긴 겨울을 보내려면 신선한 채소의 공급으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겨울철 영양관리

- ▶ 지방이 많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 ▶ 싱싱한 제철 생선으로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 ▶ 요오드, 무기질,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인 다시마, 김, 파래, 미역 등의 해조류를 섭취합니다.
- ▶ 귤, 모과 등의 과일차로 비타민 섭취를 늘려 감기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 고른 영양 섭취와 알맞은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취침과 기상, 식사시간 등 생리적인 현상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강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 ▶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적당히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적당한 영양을 섭취합니다. 영양분은 몸의 각 부분을 만들고 힘을 내게 하며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 *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물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출처:영양사도우미 사이트
홍천군노인복지관 이윤희 영양사

기자칼럼



김 정 현

홍천실버신문 기자

어릴 때는 부모의 보살핌으로 커간다. 농경사회를 지나 경제 지상주의에 자라다보니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유아 시절부터 이것저것 배우기에 내몰리기 십상이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인 과외는 시작이 된다.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이 들어설 틈이 없다. 얼마 전의 신문에는 강남이나 목동의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자퇴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내신 성적의 불리함에서 벗어나 검정고시로 수시 합격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물론 청년기에는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유이불학 노무소지”라고 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지금은 자신의 수양을 위하고 인격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뒷전이다. 좋은 자리 좋은 직장을 취업해 남보다 우월하게 잘 살아 보려는 경쟁심에서 이이들을 어려서부터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취업의 유리한 과목만이 대학에서도 선호하고 비인기 과목으로 전락한 인문학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인문학은 사람이 되게 하는 학문이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만들고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품위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문인데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해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다. 작금의 사회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와 한탕주의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사건 사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나 추락한 비행기의 생존자들의 밀림에서의 일상을 그린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감동 깊게 본적이 있다. 줄거리는 비행기의 추락으로 밀림의 오지에서 살아남은 여자들의 일상을 그린 내용이다. 격리된 삶이 바깥의 삶을 차단한 그들의 세상은 이성마저 몰라보는 극한의 삶을 보여 주었다. 사람은 어디에도 잘 적응을 하는 성질과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잘 적응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 나가리라 믿어지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문제가 되

굴리고 다닌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속성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등한 삶은 공산주의 이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삶은 좋은 이 광명의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바라 볼 수 있겠는가? 만약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로 태어났다면 나와 이웃과 인연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과 관계 속에 오는 즐거움과 미묘한 느낌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복잡한 인과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고는 한다.

한편 생각하면 그런 관계망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이 이어지겠는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 인(人)자도 서로 붙들고서 있지 않은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이다. 98세에 “약해지지마”란 시집을 출판한 일본의 시바다 도요는 ‘바람과 햇살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시를 써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우리가 정신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행의 시가 마음의 안식을 주고 다시 일어서 견게 하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고 살아 볼 용기를 얻는 지혜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는 것 마음먹기 달렸다

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거의가 금전과 맞물려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행하는 마음씨를, 즉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했다. 순자는 이와는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했다. 사람은 다 관능적인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선설과 성악설 역시 동전의 양면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 교육에 의해 거의 80%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영화 부시맨의 경우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본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음료수병을

곤 한다. 인터넷 뉴스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한다. OECD국가 중에서도 이혼율이 9번째로 높다고 한다. 이런 사회문제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뚜렷한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릿고개의 가난한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때는 정신적인 괴로는 덜했다. 저녁 내내 곶보리를 디딜방아에 찧어 아침에 보리만 삶아 먹어도 마음이 편했었다. 지금은 물질이 남아도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20평의 아파트에 사는데 부모를 잘 만난 그 친구는 40평의 맨션아파트에 외제차를